



광주'세계 아리랑 축전'으로 23년만에 다시 만난 작곡가 황호준·피아니스트 박의혁

광주에 오고 선후배 사이로 23년만에 해후한 작곡가 황호준(사진 왼쪽) 피아니스트 박의혁씨가 지난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힘들었지만 도전의식 자극한 멋진 작업”

작곡가 황호준(40)은 강단에 모인 전교생들을 리드하며 구호를 외쳤다. 한학선 선배였던 피아니스트 박의혁(41)은 옆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다.

황호준, 주제공연 작곡·세계 음악, 아리랑에 담아 박의혁, '님을 위한 행진곡' 모티브 작곡·연주 광주에 오고 선후배 “내년엔 공동작품 만들어보자”

5월 광주와 땀 수 없는 유년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때 엄마랑 찾아간 기독교병원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봤고,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모여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이 담긴 테이프를 제작하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한다.

박씨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변주한 작품 '무등진혼'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피아노를 주조로 해서, 타악과 해금이 어우러지는 15분 분량의 작품입니다.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테마로 삼다보니 곡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번에 국악기를 활용한 작품은 처음 만들어 봤는데 심금을 울리는 해금 소리가 특별한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용이 어우러지는 데 색다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를 거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씨는 12년간의 유학 생활을 접고 지난 2009년 귀국해 현재 전남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전남대 졸업 후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에게 재즈를 배우기도 했던 박씨는 미국에서 정통 피아노 연주뿐 아니

라, 재즈, 작곡, 지휘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2009년 7월 영주권 사인을 하루 앞두고 한국행을 택한 건 크나큰 모험이었다. 주변의 만류도 많았고 처음 한국에 와서는 후회도 있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푸른연극마을이 무대에 올린 뮤지컬 '저 별이 위험하다'의 뮤지컬 넘버를 제작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는 클래식 음악을 재즈화 시키는 작업들,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작업들도 꿈꾸고 있다.

황씨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 중 한명이다. 올해는 창곡 '이순신'과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등을 작곡했다. 또 국립극단이 무대에 올리는 아버지 작품 '소년'의 음악을 맡았고, 국립창극단의 '배비장전'도 대가 중이다.

오랜만에 조우한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서로가 만들고 있는 음악에 대해 귀 기울였다. 황씨가 “내년 즈음에는 형하고 작업한 해야겠다고, 판을 한번 벌여야겠다”고 이야기를 건네자 박씨는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네게 많은 걸 배우야겠다”며 “꼭 뭔가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며 의기투합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1월 25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中 절강성 7000년 보물

연말 중서 강진 고려청자 전시

중국 절강성 보물 200점이 광주에 온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5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절강성의 보물' 특별전을 연다. 한·중 수교 20주년 및 중국 절강성 박물관과의 자매관 교류 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기획전은 절강성 박물관의 소장품 중 대표유물 200점을 엄선, 선보인다. 전시는 중국 절강성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모두 6부로 나뉘어 구성했다.

1부는 기원전 5000년 무렵 세계 최초로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한 하모도문화(河姆渡文化) 출토품과 각종 옥기(玉器)로 유명한 기원전 3000년 무렵 양저문화(良渚文化)를 증언하는 유물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하(夏)·상(商)·주(周) 이래 분얼과 통합을 거듭한 절강성 역사를 시대별로 소개하며 춘추전국

시대 절강성 일대 패자를 두고 자웅을 겨룬 오(吳)와 월(越)의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을 만나볼 있다. 여기에서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주인공인 월왕 구천(句踐)의 증손자 주구(州句)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월왕 주구자작용검'(越王州句自作用劍)도 전시된다. 또 '절강성의 불교'라는 주제로 꾸민 공간에서는 절강성 일대 탑과 사찰에서 발굴된 성과 뿐 아니라 중국 불교 문화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송·원·명·청 시대 불상·불경이 소개된다. 중국 청자의 분향으로 절강성의 대표적 문화 유산인 청자를 소개로 한 4부 '청자의 분향'전에서는 상주(商周)시대 이래 고려토를 사용해 1250에서 구워낸 회기적인 발명품인 원사자(原始磁)부터 명나라 때 가마인 용천요(龍泉窯)에서 구운 청자까지 중국 청자의 변화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중국회화 500년'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코너에서는 명·청대 회화 흐름



'금동불좌상'

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절강성박물관이 소장한 공예품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전시 이후 교환 전시로 '신안해저 침전선과 강진 고려청자' 특별전을 오는 12월 절강성박물관에서 열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수 어린 멜로디... 그 아련한 선율

오늘 '브람스 소나타의 밤' 이형석 독주회

슬슬함, 외로움, 눈물. 브람스는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곡가로 꼽힌다. 슬픔에 젖어 있게 하는 우수 어린 멜로디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특히 그 아련한 선율을 바이올린으로 듣는다면 마음은 더 흔들리게 마련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형석(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사진)씨가 '가을, 브람스 소나타의 밤'을 주제로 독주회를 갖는다. 25일 오후 7시30분 드림아트홀.

이번에 들려주는 곡은 브람스가 친구인 바이올리니스트 요하임을 위해 작곡한 '소나타 1번 G장조'로 작곡가가 '은화하고 가벼운, 비오는 저녁의 달콤 쓸쓸한 분위기의 곡'이라고 칭했던 음악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또 한국은 '소나타 3번 D단조'다. 친구의 죽음과 당시 불우했던 자신의 심정이 담겨 있는 우수에 싸인 곡으로 브람스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인 우울한 감정이 잘 드러난 곡이다. 특히 2악장의 우수 어린 감상은 압권이다. 피아노 반주는 구재항(호남신학대 교수)씨가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역시, 독서입니다

내일 광주역 광장서 '책책책책 책 콘서트'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3시 광주역 광장에서 '제3회 책책책책 책 콘서트'를 연다.

책책책책 책 콘서트는 전국으로 뻗어있는 철도처럼 독서 환경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독서나눔사업으로, 대구·대전에서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소외계층 등 시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파어머니합창단의 공연, '연탄길'과 '위로'를 쓴 이철환 작가와의 대화, 전통타악 그룹 SLAP의 공연 등이 마련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선물하는 '책 드림 행사'가 열리며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독서관련 사업 체험 부스 등도 운영된다. 문의 02-3704-271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윙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이태리가구 40% OFF ~ www.hong79.com(홍천구닷컴) 10월 25일까지 동구청앞 홍스페이스 1899-0240

모던가구 11월판매 40% 예약판매 다른가구는 절대 못 보십니다. 홍스페이스가 30년만에 모던가구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